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호미와 굴착기

최근 지역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16개 광역 문화재단을 포함해서 대략 100개의 문화재단이 있고,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설립 근거를 갖게 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예술 영역에서 생산자와 공급자 중심의 예술이 아니라 주민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예술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노동 중심의 삶에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에 기초한 '문화가 있는 삶'에 대한 갈증도 한류하고 있다.

연장과 미술전시관, 문화센터 등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더라도 새로운 변화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이 지역 문화재단은 이중적 정체성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공공기관으로서 법령과 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따르는 부분과 문화 예술 영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원하는 유연함이라는 정체성의 측면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역문화재단이 어떻게 일할 것인지의 해답은 지역 문화재단이 대부분 기초자치단체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모든 정책의 마지막 종착지인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나 광역 단위의 정책이나 사업·예산은 부서별 분야별로 모두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교육과 문화, 도시 재생, 사회적 경제, 돌봄, 복지 등이 동시에 만나게 된다.

그렇다면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일까. 문화재단이라는 이유로 '문화'와 '예술'만 사업 영역으로 설정한 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문화'와 '예술'을 매개

社說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전철화 서둘러야

1930년 일제 강점기에 부설된 경전선(慶全線)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이다. 양 도의 첫 글자를 따 이름 지었다. 광주 승정역에서 경남 삼랑진역까지 289.5km에 달한다. 일제 강점기에는 전라도 곡창 지대의 쌀 등을 수탈해 가는 철도였지만 해방 이후에는 새벽에 광주와 순천 등지로 농수산물을 팔러 오가는 서민들의 발 역할을 톡톡히 했다.

태다. 어제 전남 사회단체 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전남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 예산을 즉각 반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에 광주~순천 간 전철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최근에야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 결과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관건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츰 경전선 열차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타 교통 기관의 발달로 자동차 등에 비해 너무 느린 속도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선 전철화 공사가 부분적으로 이뤄졌다. 순천-광양 구간과 삼랑진~진주 구간이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복선 전철화되고, 광양~진주 구간은 2016년에 복선화 됐다. 하지만 경전선 전체 구간 가운데 광주 승정~순천 구간(116.5km)만은 단 한 번도 개량되지 않은 채 88년째 부설 당시 그대로 여전히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는 상

이러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은 경제 논리를 떠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영호남 상생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전철화돼야 한다. 이미 개량된 타 구간과 원활한 연결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후일 경전선을 개량해 소요 시간이 자동차에 버금간다면 이용객도 대폭 늘어날 것이고 광주와 부산 간 새로운 교통 축을 형성해 영호남 관광과 경제 등 상생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 70년 만에 한 풀렸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양금액 할머니 등 여자 근로장신대 피해자 네 분과 유족 한 분, 정창희 할아버지 등 여섯 분이 각각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두건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 실은 한-일 관계를 의식한 정치 소송이나 마찬가지였다. 법원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이 지연되거나 정치적 판단으로 전범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일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재판 거래' 때문에 고의로 재판이 지연되는 피해를 본 것이다.

대법원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미쓰비시가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해 배상 책임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시 1인당 8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과로 환영할 일이다. 같은 날 할머니와 할아버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동시에 승소한 것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종 판결까지 오래 걸렸다 보니 상당수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고인이 돼 기쁨을 맛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늦었지만 일제 강제 징용의 부당함을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74년 만에 한을 풀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無等鼓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하이лай트는 1985년 웹블리 라이브 에이드 공연을 다시 보여 주는 장면이다. 에티오피아 난민 돕기 자선 콘서트에서 '영국 제2의 여왕' 퀸의 리더 프레디 머큐리는 7만 2000여 명의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환상적인 열광과 무대 퍼포먼스를 보여 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말대로 '스타'를 넘어 '전설'이 되었다.

맛대결을 펼친 장소도 이곳이다. 이 역사적인 장소 웹블리에서도 한 명의 스타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국 축구의 중심 손흥민이다. 웹블리를 홀구장으로 쓰고 있는 토트넘 소속의 손흥민은 지난 25일 첨시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췌기 풀을 터트려 팀의 3대1 승리를 이끌었다. 하프 라인에서부터 50m나 단독 드리블을 한 뒤 슈비수 조르자누와 루이스를 가볍게 제치고 원발 슈트로 골키퍼 케파를 녹다운시켰다. 마라도나가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전에서 터뜨린 축구 사상 최고의 골을 연상케 하는 슈퍼 골이었다. 이 골은 토트넘 50호 골이자 유럽 4대 리그 통산 99호 골이었다.

웹블리의 전설

Table with 2 columns: Date and Content. Includes publication info for Kwangju Ilbo and a notice about the 'No Equal Drum' section.

종교칼럼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스님

나와 같은

뜬이 길가에 트럭을 세워서 풍경 사진을 찍기도 하고, 트럭 안에서 찜찜이 소설도 쓰는 한국인 트럭커가 나왔다. 외도는 그렇다 쳐더라도 마초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젖어 있을 거라 막연하게 생각했던 트럭커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달라서 두시간 가까이 눈을 떼지 않고 붙임해서 보았다.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같이 한 사람일지라도 일단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굳어지고 나면 대화의 필요성이 사라진다. 일부 간에 관계가 찾아오고 가족 간에 대화가 단절되는 건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미지의 정형화가 두드러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 교사, 항공기 조종사, 성직자 등이 아마도 이런 부류일 것이다. 지칭하는 말 속에 이미 정해진 이미지가 녹아 들어가 있을 뿐더러, 심지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는 일로 그 사람을 부르기도 한다. "스님!", "교수님!", "사장님!"처럼 말이다. 그러나 소설을 쓰는 트럭커, 고양이를 돌보는 스님처럼 각각의 사람들은 정형적인 틀로 재단할 수 없는 제작각의 개성과 취향을 가지고 있다.

비중은 간이 침대, 돋보기 안경을 코에 걸친 중년의 한 아저씨가 무릎 위에 노트를 펼쳐 놓고 있는 불편한 자세로 소설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를 보는 내 머리속엔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낯선 미국 땅에서 겪었을 숱한 부침과 실패, 시련과 희망, 말로 풀어나면 밤을 지새워도 모자랄 사연들이 그의 마음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 것만 같았다.

기고

'황금 투구를 쓴 물고기' 영광 굴비



강영우
영광부군수

린, 글투탐산 등이 생성된다. 이때 상당량의 유리아미노산이 증가하여 조기의 맛은 좋아지고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소화 흡수가 증진된다. 이로 인하여 환자나 노약자에게 영양식으로 좋으며 어린 아들에게는 발육과 원기 회복에 좋다. 약성이 뜨겁거나 차지 않아 위(胃)에도 매우 유익하다. 절인 생선 중 그 맛과 영양이 으뜸으로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점으로 두 종의 구분이 가능하다. 동해와 남해에 명태, 멸치가 있다면 서해는 조기다. 명태를 말려 볶아 되고 생 멸치를 말려 건 멸치가 되는 것처럼 나 요약자에게 영양식으로 좋으며 어린 아들에게는 발육과 원기 회복에 좋다. 약성이 뜨겁거나 차지 않아 위(胃)에도 매우 유익하다. 절인 생선 중 그 맛과 영양이 으뜸으로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래 굴비 산업의 성패는 참조기 대량 양식과 이를 산업화 하는 길에 달려있다 할 수 있다. 영광군에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 원 등 총 400억 원을 들여 참조기 양식 산업 확대와 냉동 냉장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굴비는 인종 때 영광으로 유배된 이자 곁이 해풍에 말린 조기과의 생선을 먹어 보고, 그 맛이 좋아 임금님께 진상하면서 결국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굴비(麧比)'라 이름 붙인 데서 유래한다.

조기는 제주 남서쪽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2월이면 서서히 산란을 위해 북상한다. 4월 초순경 대략 한식에 영광 법성포 앞 칠산 바다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의 참조기는 산란을 위해 살이 퉁퉁하고 알이 짝 차 가장 맛있는 시기이다.

특히 영광 염전은 인근에 공업단지나 대도시가 없는 청정지역이다. 전혀 오염되지 않은 칠산 바다에서 생산한 천일염을 3년간 저장하여 쓴맛을 내는 간수와 이물질들을 제거한 후 조기에 염장을 해 굴비를 만든다. 천일염은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등 무기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조기의 근육 조직을 파괴하지 않아 생선 살이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성이 높아지도록 한다. 영광 굴비 깊은 맛의 비결이다.

이처럼 국민 먹거리로 평평이 나 있는 굴비가 우리 식탁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참조기 어획량은 2011년 5만 9000 t에서 2017년 1만 9000 t으로 계속 감소하였고 금년 들어 어획량이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탐탁치 않은 상황이다. 굴비 산업이 근래 들어 제2 극조의 길이가 눈의 지름보다 짧은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